

# 전남대 이경환 교수팀 '과수 생체량 정밀 측정기술' 개발

## 국제학술지 게재...과수 바이오매스 분석 응용연구로 확장 전망

전남대학교는 융합바이오시스템계공학과 이경환 교수팀이 과수의 가지치기 효과와 수형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정밀 측정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수팀은 모바일 로봇에 탑재된 다중 카메라를 이용해 과수의 3차원 포인트클라우드 영상을 획득

하고 과수의 생체량(바이오매스)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겨울철 잎이 없는 과수의 생물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과수의 줄기와 가지의 비율을 분석할 수 있다. 또 가지치기 전후 비교 분석해 그 효과를 알 수 있

으며 과수의 줄기와 가지의 비율을 지수화해 과수의 수형 상태도 파악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첨단 융복합 농업기술 분야 국제학술지(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4월호)에 게재됐다. 연구는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계고도화사업,

첨단 농기계 산업화기술개발사업, BK21 4단계 IT-Bio(바이오) 융합 시스템농업 교육연구단의 지원으로 수행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카메라만으로 과수와 같은 복잡한 대상체를 3차원화하고 분석할 수 있다"며 "향후 도심 가로수는 물론 잎과 과일 이 있는 과수의 바이오매스를 분석하는 응용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도기 기자

### 포토뉴스



서구, 국가대표들과 함께 '꿈나무 펜싱교실' 서구는 지난 13일 오전 열 추체육관 펜싱훈련장에서 국가대표 활약 중인 서구 펜싱선수단과 함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펜싱교실'을 개최했다. /조선주 기자

# 온마을이음학교 '동구 학교와 지역 이어주는 허브' 출범

## 동구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쌈 · 미리 대학 등 공동 노력



'온마을이음학교 동구 이음센터'가 지난 12일 내일 있는 '온마을이음학교 사업' 운영을 위해 출범했다. 14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하 시민협치진흥원)에 따르면 동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이진선 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정성숙 동부교육장, 김진구 시민협치

진흥원장, 김재식 동구 의장 등 협력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온마을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 허브 역할을 할 동구 이음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온마을이음학교(동구) 사업은 ▲지자체-민-관-학 교육거버넌스 구축 ▲학생이 배운 것을 지역에 환

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동구만의 특색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3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협치진흥원은 세부과제로 ▲이음센터 출범 ▲나도쌈 프로젝트 ▲찾아가는 마을쌈 ▲마을교육력 지원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선순환 교육과정들을 운영하며, 광주 동구는 ▲온마을 미리대학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청소년 인문 역량 강화 ▲탄소중립 실천학교 등의 문화예술·인문 교육과정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동구청-조선대가 함께 동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 미리대학을 체험해보는 온마을 '미리대학'은 7~8월 방학중에 운영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체험을 계획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 광양여중, 남녀공학 전환 앞두고 교명 변경안 공모

남녀공학으로 2025년 3월 전환 예정인 광양여자중학교가 새로운 학교 이름을 짓기 위한 공모전을 시작했다. 공모 신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 등 전국의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교명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친근하고 참신한 이름으로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역사성 및 상징성, 학교의 비전을 담은 이름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거나 중복, 혼동을 일으키는 교명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교명은 2024년 5월 초에 광양여자중학교 교명변경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1차 후보작을 복수 선정 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우수작 1점을 선정할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변경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교명 변경안은 광양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검토를 마친 후, 전남도의회와 전남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교명은 6월경 광양여자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최우수작은 30만원, 나머지 우수작 2명은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광양여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광양시 광양읍 남동1길 72-6 광양여자중학교 교무실 교명변경추진위원회)이나 메일(jr314@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김도기 기자



옥룡면 서선우 씨, 지역 모범 학생 장학금 후원 광양시 옥룡면은 대방마을 서선우 씨가 광양고 재학생에게 장학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양=조선주 기자



순천 외구교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순천시 황전면은 외구교회에서 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순천=조선주 기자

# '전라남도 장터 유랑단' 순회공연...전통시장 흥 돋운다

## 전남도, 예술단체와 협업 토 · 일 연간 30회 이상 공연



전남도는 전남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도의 전통시장엔 항상 풍악이 흐른다'는 슬로건으로 '전라남도 장터 유랑단' 풍물 순회공연을 펼친다. 장터 유랑단 풍물 순회공연은 전

남지역 예술단체들이 참여해 진행된 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지역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퓨전국악 · 버스킹 등 20개 팀을 공연 참여단체로 선정했다. 지난 12일 합평 천지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매주 토 · 일 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에서 광대놀이, 줄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간 30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순회공연 첫 날인 지난 12일 지상과 방송 '6시 내고향'의 김중하리포터가 특별출연하며, 전남도 스마트전통시장 사업본부가 진행하는 유튜브 등을 통해 합평 천지전통시장의 특산물과 상인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남상인연합회가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풍물 순회공연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옛스러운 흥과 멋을 만끽하고 향유하는 지역민 문화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mae.co.kr



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조기정착지원...KT·조선대 맞손 KT 전남 전북 광역본부는 조선대와 지난 12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편의 제공과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홍보웹툰'

## 6기 112명 재능기부... '댄스배틀' 소재 제작·사업 소개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청년 서포터즈112가 홍보웹툰을 제작한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청년 서포터즈112' 제6기 112명이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6기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제안한다. 또 6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홍보 콘텐츠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5건 이상 게시·공유하고 N행시 짓기 등 홍보 문구 글짓기 활동을 한다. 특히 6기 청년 서포터즈112는 호남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광주자치경찰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는 홍보 웹툰을 제작한다. 웹툰 소재는 청년들의 젊은 감성에 맞게 '댄스 배틀'이라는 소재로 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5기까지 홍보 콘텐츠를 카드뉴스 형식으로만 제작했으나 '웹툰'으로 바뀌면서 젊은층의 관심을 끌고 시민 호감도 상승, 주요 시책 홍보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웹툰이 소개된 치안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 및 자전거 순찰대, 청년 서포터즈 등의 자긍심 향상에 기대된다. /김도기 기자

# 순천교육청, 찾아가는 교육장 공감소통

## 소통·경청 통한 현장중심 교육지원 강화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부터 학교구성원, 학부모,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장이 찾아가는 공감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장중심 교육지원을 위해 지난 11일부터는 순천북유치원 시작으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4 상반기 교육장 공감소통 학교 현장 방문'에 나섰다. 2025년 전면시행될 유보통합 추진을 앞두고 순천북유치원에 방문한 허동균 교육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며 교육 분야의 애로사항과 시설 운영 관리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 및 대안책

을 제시했다. 참석 한 학부모는 "직접원을 방문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과 지원을 약속 받아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허동균 순천교육장은 "글로벌 미래교육 대전환 시기에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학교급별로 많은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의견을 경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현장중심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선주 기자

#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문화예술기획 전시

## 오는 12월까지 운영...이달 오혜성 작가 작품 선포



광주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북구 광주자연과학고 인근 체험관 3층 안전마루 쉼터에서 '안전체험관 기획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기획 전시는 시민들이 안전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문화예술 작품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로부터 지역 미술 작가를 추천받아 3명의 작가를 선정, 연말까지 분기별로 작품을 선보인다. 첫 전시는 8일부터 4월 말까지 오

혜성 작가의 작품 '별들 사이 혜성'을 선보인다. 오 작가는 우주에서 빛나는 별들과 그 안의 혜성 이야기를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한 12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또 8월과 12월에도 지역작가를 초청해 1개월간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는 체험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이번 기획전시로 시민들이 체험관에서 안전과 문화를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